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아보기

내 곁의 사람을 존귀히 여길 때

시편 16편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태도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1-4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찬양하며(5-8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9-11절)입니다.

시인은 그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자격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2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3절)라는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존귀하다'는 단순히 가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위엄 있고 고귀하다는 뉘앙스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구별해 세우신 성도들을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고백하며 그들이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에,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존귀한 사람들을 붙여 주십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해, 때로는 교회의 지체를 통해, 때로는 믿음의 친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을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께도 하찮게 여김을 당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며, '즐거움'이 동역자를 통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경 가르침의 요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2:37 등).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도 바로 이 두 계명 위에서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행복은 오직 주님의 손에서 옵니다. 또한 주님께서 곁에 세워 주신 공동체와 동역자들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저 또한 주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시편 16편이 안내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도의 방식을 체험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

 텍스트와 콘텍스트

하나님의 성품과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라



김성진 담임목사

본문의 배경

성경에는 신앙의 선진들의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들은 마치 시험의 기출 문제처럼,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들의 기도와 응답을 알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세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신 사건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첫 신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신현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의인을 구원하시는 자비를 동시에 드러내신 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되, 자비로 구원하시는 이 모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구했던 모습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중보자로 세워진 아브라함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문의 더 깊은 의미는, 이어지는 소돔 성 심판과 관련된 대화 속에 드러납니다. 세 나그네 가운데 두 천사는 소돔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옆에 세우셔서 마므레 언덕에서 소돔 성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22절).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소돔을 두고 서 계신 것처럼 묘사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긴 대화가 시작되는데, 언뜻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역할이 바뀐 듯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성을 구하려 간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을 옆에 두고 소돔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앞선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17절) 하시며, 소돔의 부르짖음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20-21절). 하나님은 실제로 몰라

서 확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서 이런 과정을 보여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앞서 집안을 이끌 큰 아버지라는 ‘아브람’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창 12:3). 그리고 이삭을 약속하시며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그를 세우신 뒤, 이제는 그 시선을 넓혀 소돔 성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열국을 품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소돔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기도로
심판 속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휼을 구하다.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롯을 구했듯
부모의 기도는
자녀와 가정의 생명선이 된다.

한 공동체와 한 가정의 믿음이
세대를 살리고
세상을 움직인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사명과 사랑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로서, 멸망 앞에 선 소돔을 바라보며 간절히 중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23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의 행하실 것이 아니이까”(25절)라고 간구합니다. 그의 기도의 특징은 단순히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 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인의 구원에 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귀 기울이십니다.

한 공동체와 한 가정의 사명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 소돔 성을 멸망에서 건지기 위한 ‘의인의 숫자’를 점점 줄여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50은 당시 사회에서 한 공동체, 혹은 군대의 최소 단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소돔 성 안에 의인의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로 인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 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 하시리이까...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창 18:22-33)

그 성을 보존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는 단순히 성도 몇 명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세대를 살리기 위해 두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숫자를 줄여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꺼이 응답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귀히 여기시며, 단 몇 명이라도 의인의 존재를 이유로 심판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내 5명이나 1명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열 명은 한 가정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로운 가정 한 집이라도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열 명을 마지막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믿음과 의를 귀하게 여기시며, 단 한 가정이 세워져 있어도 도시와 세대를 공휼로 붙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교회와 가정을 통해 이 땅의 심판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을 구한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 롯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성에서 의로운 가정을 찾으셨지만, 사실 롯의 가정은 온전히 의로운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뒤를 힐끗 본 행위가 아니라, 여전히 소돔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이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하게 한 것입니다. 두 딸 또한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로 자녀를 낳았으니, 그들 역시 소돔의 죄악된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며 늘 염려하고 기도했던 그 간구가, 결국 그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 간다 해도,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을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자녀와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붙드시는 통로가 됩니다.

맺음말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사명을 품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한여름밤의특별금요기도회 취재

한여름 밤, 다섯 번의 말씀으로 열린 선물상자



 폭우와 폭염이 반복된 올여름 교회는 8월 한 달, 매주 금요일 밤마다 특별한 기도회를 열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다.

5주간 선물상자가 열리다

첫 주(8월 1일)에는 워싱턴중앙장로교회의 류응렬 목사님이 '우리가 없드리면 하나님이 일어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사무엘상 7장 5절~10절 말씀을 통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취한 '하나님 앞에 없드리'의 의미가 선포되었다.

둘째 주(8월 8일)에는 아신대 명예교수인 원종천 교수님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출애굽기 33장 15절~23절까지의 말씀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동행은 거부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간절한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핵심 메시지였다. 모세는 당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구한다. 우리 역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셋째 주(8월 15일)에는 총신신대원 신약학 교수인 조호형 교수님의 '나의 나 됨'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다. 음행, 결혼제도, 남녀 역할, 성찬, 은사 등 수두룩한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 이야기였다. 고린도전서 1장 4-9절 말씀을 통해 자기중심으로 판단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신적 수동 진행형'이라는 형태의 말씀으로 나의 나 됨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임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사명을 위해 흘려보내져야 한다.

한여름밤의특별금요기도회 후기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전 금요기도회는 꼭 빠지지 않고 참석하리라 다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제 신앙을 지켜주는 중요한 은혜의 자리였기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꾸준히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경험 위에, 주님께서 이번 '한여름 밤의 특별금요기도회'를 통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첫째 주와 둘째 주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류응렬 목사님의 집회는 압도적인 은혜의 시간이었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성경 말씀을 낭독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제 뒤에서 들려오던 눈물 섞인 기도 소리에 제 마음도 깊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시간이 금요일마다 이어진다면 열린교회에도 애즈베리 부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기에 기도한다

류응렬 목사님의 말씀 중 언급하신 원로 목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족과 자녀, 이웃,



넷째 주(8월 22일)에는 주종훈 교수님이 '그리스도의 돌보시는 은혜와 돌봄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다가오신 주님께로의 반응에 대해 전하였다. 누가복음 10장 25-3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예측불허의 일을 만나게 되는데, 나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실 방법을 우리 스스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 공동체 역시 주변을 향해 환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전하였다.

마지막 주(8월 29일)에는 열린교회 청년부 디렉터 손하람 목사님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사무

엘상 30장1-6절 말씀을 전했다. '다급해진' 사울이 쉽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세상 방식을 따랐으나, 다윗은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를 다급하게 하는 것들인 부부, 자녀, 경제 등의 문제에서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한 나무 다섯 가지처럼

한여름 밤, 다섯 번의 말씀은 약속한 듯 하나의 나무였다. 성도는 기도해야만 산다는 것, 그리고 누구를,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되었다. 메시지 때마다 뜨거운 회개기도가 이어졌다. 필자는 말씀을 들으며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걱정하고 찾아오신 듯해서다. 한 번 당시 뜻을 전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쏟아부으셨다.

이 말씀은 내게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한 신자의 인생 여정에서 사망으로 옥여쌘을 당할 때, '이게 현실적 방법'이라고 외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감을 가진 인간에게 그 소리는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곤 하는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는 천상의 삶을 사는데 난 왜 고아처럼 살 때가 많은가!

사무엘, 모세, 다윗... 나처럼 유한한 인간들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다 갔다. 절박한 삶의 실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없드렸는지를 보았다. 그들이 부복(俯伏)하여 섬긴 그 동일한 분이 21세기 이곳 내 앞에 계신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

취재: 신미숙 기자 pacific1009@naver.com



안경록 장년6교구
kyungrock0105@gmail.com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저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제 부족함과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여러 어려움을 통해 이 진리를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순종하는 삶

애즈베리 부흥의 뒤편에서 기도하던 주역인 홍 선교사님 사모님의 "남편이 가니까 따라간다"는 고백이 제 마음을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니 저 역시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왔음을 깨달았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회개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제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요 섬김기도를 섬기며 흘린 눈물은 결국 제 죄를 깨닫는 과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

다. 지금은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 전 기도의 도전

원종천 교수님의 "예배 2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제게 깊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즐거움과 믿음의 기대

이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통해 저는 '순종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며, 그 사랑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제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능력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와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

원거리아웃리치 후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은 계획하신다



정옥희 장년3교구
hanbit48@hanmail.net



“일 년은 여행도 다니며 쉬어야겠다!” 33년 동안 하던 사업장을 2023년 8월에 정리하며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니 나름의 안식년을 가지겠다는 생각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쉬고자 했던 저를 이끌어 화요전도와 수요직장인전도의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그동안 바쁨과 두려움으로 인해 체쳐두었던 전도였는데, 처음에는 어렵던 전도가 하다 보니 조금씩 할 만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전도와는 달리 아웃리치의 길은 직장 은퇴 후에도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해외 아웃리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가지 못했고, 2025년도 국내 아웃리치에도 참여를 희망했으나 가족들에게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웃리치를 가고 싶어도 해외 아웃리치를 가기에는 건강에 자신이 없고, 국내 아웃리치도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가게 되면서, 전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실감하던 그때, 2025년에 새롭게 열리는 원거리 아웃리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암 수술 후에 여전히 치료 중이기도 하고,

허벅지에 석회화 있어 많이 걸거나 서 있으면 통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한 잠자리와 씻는 것 등도 불편할 것을 생각하니 다소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며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은 저에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고민 중에 화요일 입주전도를 하는데 다리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사라졌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고 건강할 때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원거리 아웃리치를 신청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투덜대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자 아웃리치 준비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여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되었습니다. 많은 비가 왔지만, 무사히 완도 화홍포항에 잘 도착했고, 좋은 날씨 속에서 배를 타고 소안도에 들어갔습니다. 소안진산교회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점심 식사를 대접받고 힘을 내어 오후부터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속한 팀이 당일과 다음 날 내내 전도했어도 아무도 영접기도까지 따라 하는 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도 영접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조바심으로

마지막 전도하는 날에 혹시나 하고 노인정을 재방문했다가 어떤 노인분을 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20세 된 아들을 잃은 후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만 노인정에 나오시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이 어르신께 복음을 전했다니 놀랍게도 마음을 열고 영접기도까지 따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된 영혼을 끝까지 대기시켰다가 저를 만나 주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놀라웠습니다. 복음화율이 높지 않은 소안도이지만 초청잔치 때에는 4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걱정했던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고 안전하게 숙면하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복음을 전했던 3박 4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무사히 귀가하여 어떻게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번 원거리 아웃리치를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를 주인공으로 예비하셨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번 원거리 아웃리치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의 지역 전도와 아웃리치에도 변함없이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전도회 출범

교구와 세대를 넘어 공동체를 잇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목양 구조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두 가지를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구를 6개에서 7개로 증설하여 교구 담당 목회자가 목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둘째, 여성 성도를 연령별로 5개의 세대로 나누어 여성 전도사님들이 세대별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며 영혼을 돌볼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교구가 ‘종(縱)’이라면, 여성 세대는 ‘횡(橫)’을 이루어 직물이 촘촘하게 직조되듯 교회 목양을 더욱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큰 관심을 모은 것은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신설이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동안 교구와 세대 목양에 대한 개념이 정리됨에 따라, 하반기를 맞아 전도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회 신설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는 총회와 노회에서 공통으로 조직되어 있는 평신도 자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총회 산하 속회에는 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 기독교장년면교회전국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동서울노회 산하기관에도 장로회연합회, 주일학교연합회, 남전도회연합회, 여전도회연합회가 존재합니다. 총회와 노회에 공통으로 조직되어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조직은 주일학교, 남전도회, 여전도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를 ‘다음세대사역위원회’로 조직하고 있었지만,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열린교회가 상회에서 많은 섬김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회와의 소통과 유대관계 형성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서를 따르고 상회의 요청을 반영하여,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열린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열린교회는 교구 목양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성장해 왔지만, 교구 중심의 구조는 ‘다양한 성도의 교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구와 구역 중심의 좁은 범위의 교제로 인해, 몇 년 동안 출석했음에도 교구와 구역 지체 외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남성 성도의 경우, 제한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구역모임에 충실하지 못하면 교회 내에서 거의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여성 성도는 상대적으로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지만, 그럼에도 ‘교제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하고, 교회가 성도들의 교제 범위를 넓히기 위한 대안으로 전도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회는 비슷한 연령대 성도들이 만나 다양한 교제의 장을 형성하게 하여, 교회가 보다 생동감 있고 즐거운 신앙생활의 터가 되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전도회가 지금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구와 여성 세대를 통해 선명하고 세밀한 목양을 실현하면서, 평신도 자치 기구인 전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교제를 넓혀 나간다면, 교회 공동체는 더욱 풍성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도회가 아름답게 자리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이성도 목사 행정사역위원회 saintslee79@hanmail.net

전도회별 회장



(1남전도회) 광경신 | (1여전도회) 이세희



(2남전도회) 송신명 | (2여전도회) 김주희



(3남전도회) 최복진 | (3여전도회) 허영주



(4남전도회) 최영재 | (4여전도회) 유재명



(5남전도회) 유동식 | (5여전도회) 허혜숙

통합 남·여전도회

통합 남전도회
회장 최영재
부회장 최복진
총무 김연주
회계 신동욱
서기 송신명

통합 여전도회
회장 유재명
부회장 이영미
총무 허영주
회계 김주희
서기 박미진

백향목공동체 소식

신앙과 삶을 풍성히 나누는 금요일의 백향목



이규희 백향목공동체 담당 목사
kalgoong292@gmail.com



노년 사역의 필요성과 배경

지금까지 많은 교회는 성도들이 70세가 되면 교회의 여러 사역에서 은퇴하여, 섬김을 받는 세대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기독일보, 「한국교회, 사회보다 더 빠른 고령화」, [2025.07.09]). 이러한 사실은 우리 주변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 많은 교회에서는 60대 이하 성도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으며, 서울의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성도 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인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인 사역은 더 이상 단순히 ‘노인 대학’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섬김과 사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단과 교회마다 다양한 연구와 실제적인 시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향목공동체 출범과 의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열린교회는 2023년 5월 12일에 ‘백향목공동체’를 출범시켜 새로운 노년 사역의 길을 열었습니다. “백향목공동체”라는 이름에는 시니어 성도님들이 단순히 사역에서 은퇴한 세대가 아니라, 백향목처럼 뿌리 깊게 서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귀한 인재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열린신문, vol. 336).

모임 현황과 참여 대상

백향목공동체는 금요일 모임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시니어 공동체입니다. 만 69세(올해 기준 1956년생) 이상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매주 80여 명의 회원들이(격주로 참석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 백향목공동체와 더불어 신앙과 삶을 나누고 계십니다.



모임 커리큘럼과 활동

백향목공동체 모임은 상반기(3월~6월)와 하반기(9월~11월), 두 학기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기 중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함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이어 팀별 공과 모임을 소그룹으로 나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별관 2층에서 교제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주별 일정에 따라 학과 수업이나 특강이 진행됩니다. 이후 2시부터 3시까지는 백향목합창단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며, 공동체의 화합과 기쁨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중 학과 수업은 시니어 성도님들의 재능과 관심사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학기마다 지속적으로 수정,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찬양 교실, 캘리그

래피, 시니어 아트, 노인 운동, 손쉬운 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특징과 은혜 나눔

백향목공동체의 모임은 교구가 함께 통합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교회 전체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매주 조별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팀별 공과 모임은 큰 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기에, 보다 깊이 있는 나눔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성도 간의 사랑과 격려가 풍성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학과 수업에서는 선별된 강사님들의 특강을 통해 백향목공동체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배움과 도전이 주어지고 있어, 삶과 믿음에 선한 유익을 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

백향목공동체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노년의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며, 그에 맞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노년 성도들이 소외되지 않고 여전히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의 장입니다.

70-80대는 과거와 달리 단순히 돌봄을 받아야 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여전히 건강과 열정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세대입니다. 백향목공동체는 이러한 세대가 신앙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섬김의 자리를 넓혀가는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백향목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섬김의 현장이 열리고, 노년 사역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전도회발족식 취재

함께하는 사역, 함께하는 은혜 - 전도회 발족식 개최



지난 9월 21일(주일) 오후 2시 20분, 본관 1층 예배실에서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의 발족 예배와 발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발족 예배에서는 김기현 장로님(남전도회 담당)이 사회를, 박정갑 장로님(남전도회 담당)이 기도를 맡으셨으며, 담임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8:13~23을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담임목사님은 설교에서, 최근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함께 섬기는 모습은 모세의 광야 교회와 초대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광야 교회는 초기 교회의 모델로서, 이드로가 제안한 오십부장·백부장·천부장 제도를 통해 각자가 맡은 사명을 수행하며 공동체를 세운 사례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함께 세워질 때만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일상을 감당할 수 있으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될 경우 타락할 수 있다는 점을 중세 교황 체제를 통해 설명하시면서, 섬김의 구조를 확장하여 전도회라는 횡적 섬김을 통해 교구와 구역을 넘어 서로 교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예배에 이어진 전도회 발족식은 금성철 장로님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임원진 소개, 축사, 답사, 특송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축하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발족을 통해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힘을 모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전통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편집부)



에세이

'덜' 걱정하고 '더' 기도하기



김석현 장년6교구
seokhyun.kim.78@gmail.com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30대는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남기 위해 고분분투하다 보니 정신없이 지나가서 마치 삭제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많은 분께서 비슷한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듯이 부족한 신앙이지만 정말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쏟아지는 삶의 압박들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세상을 향한 소망들,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고, 위안을 얻을 수 있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바른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평화와 행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기쁨으로 바른 삶을 찾아가는 것 자체의 기쁨을 알고 추구한다고 해도 그 과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맛있는 것 먹이고 놀이터만 가도 내가 좋은 부모인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항상 사랑스럽고 귀엽기만 할 것 같은 큰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거의 다 보내고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니 많은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럼요.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빛보다 빠르게 변해가는 것 같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성공은 아니라고 해도, 자기 삶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본인들의 신앙생활과 함께 세상에서 원하는 지식과 기술 경력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날이 갈수록 세상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그만두고 지금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사실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매일 30분이라도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큰 짐이지요. 항상 빨리 움직여야 하고 많은 결과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그러한 인생의 짐을 지고 하루하루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비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야 하니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고 낙심되는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기에 예전에 모기업에 다닐 때는 출근 버스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정말 삶에 큰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 될 때 교회에 와서 하는 섬김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깊으신 분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사실 퇴근 시간에 오고 가는 길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지만,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도 좀 신기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삶의 분주함은 똑같지만 그렇게 교회에 와서 저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기도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언젠가부터 제 삶을 붙잡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와는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에 대한 탐심에 압도된 나머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러한 선택의 순간은 저의 일상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로 마음을 정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셔서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바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한평생 살면서 작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께 드릴 감사의 답례품을 열심히 만들고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과정에 땀과 눈물과 고통이 없다면 온전한 답례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이제는 '덜' 걱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

교회 소식

청소년부 등대학교

주제: 잠언으로 바라보는 인생의 선택(잠 1:7)

주제 1국 "친구 선택의 지혜"

2국 "이성 교제의 지혜"

3국 "입시와 진로 선택의 지혜"

일시: 10월11일(토)~11월1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10시

장소: 1국-청소년부실/2국-소년부실/3국-초등부실

학습·세례·입교·유아세례 교육

교육: 10월4일(토)~10월18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문답: 10월25일(토), 11월1일(토) 오후 4시

예식: 11월9일(주일) 2부, 3부 예배 시

대상: 유아세례는 만 24개월 이전,

학습·세례·입교는 만 14세 이상

문의: 강성만 집사

※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분은 다시 학습과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예산 수립 공고 안내

각 위원회 예산안 마감: 10월 21일(화)

제 6기 기도학교

일시: 10월25일(토)~11월15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

장소: 교육실4(별관2층)

강사: 조희숙 전도사

대상: 성장반 수료자 이상

문의: 이병미 권사

새가족

▶▶ 장년

고민경(78) 서혜경(58)

윤해순(50) 김선희(68)

조문희(53)

신예숙(63)

백창재(66)

김애경(64)

김택윤(65)

▶▶ 청년

성의창(03)

이은택(06)

황규민(99)

최준호(98)

김관배(91)

윤종민(91)

남궁울(85)

배운호(80)



주요사역

4일(토) 온세대아침예배

4일(토)~11일(토) 학습·세례·입교·유아세례 교육 및 문답(5주)

11일(토)~11월1일(토) 등대학교(4주)

11일(토) 중직자기도회/부모기도회

12일(주일) 정기제직회

12일(주일)~11월2일(주일) 평신도상담학교(4주)

13일(월)~14일(화) 동서울노회

13일(월)~20일(월) 사경회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홍보전도

17일(금) 사경회를 위한 특별금요기도회

18일(토)~11월8일(토) 장년부예비일꾼교육(4주)

18일(토)~11월15일(토) 청년부예비리더교육(5주)

21일(화)~23일(목) 가을말씀사경회/

교회학교 가을말씀사경회

24일(금) 백향목공동체 가을소풍

25일(토) 청년부 섬김이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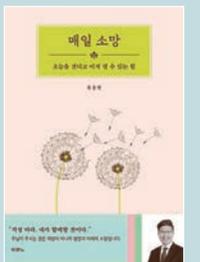
25일(토)~11월15일(토) 토요 기도학교(4주)

26일(주일) 종교개혁 세미나

추천도서

매일 소망

류응렬/두란노



어느 때보다 소망이라는 말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모두가 힘겨운 인생의 무게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소망은 자신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한다. 소망의 강물을 마시면 절망스러운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되면 기뻐하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으로 절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 광야에 잠시 두신 이유가 있다. 푸른 풀밭과 실 만한 물가로 두신 이유도 있다. 내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면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된다. 소망이 있으면 어두운 밤에도 노래 부를 수 있고, 광야 같은 삶에도 감사드릴 수 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소망은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자기 암시가 아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신앙 고백이다.

이 책에는 소망에 관한 10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다. 여러 가지 일로 영과 혼과 몸이 힘든 분들은 절망의 눈을 거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 늘도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 "걱정 마라, 나에게 계획이 있단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희망이란다." 주님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교보문고)



행복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 주님 곁에 선 삶

정상현 장년7교구
prosh0617@naver.com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혹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작은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교회를 접할 기회가 없던 중, 초등학교 때 이모가 어머니께 김치를 주는 대가로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때는 마냥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아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생이 되어서는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 특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는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셨다는데,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마음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주변 친구들에게 전도도 열심히 할 정도로 신앙에 대한 열정을 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집안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며 가정불화를 겪었습니다. 학생회장으로 나름 모범생이던 저는 겉으로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쓴뿌리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린 마음에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자주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위로가 된 것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는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당장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냈습니다. 전도한 친구들이 오히려 제가 벗어나지 않도록 위로해 주었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줄곧 꿈꾼 법조인이 되고자 법학과에 입학하였고,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시험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조금했습니다. 어느새 교회 출석을 멀리했습니다. 가정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합격하지 못한 채 28세에 일반 병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자 또다시 원망이 싹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입대 후 훈련소부터 자대까지 믿음 좋은 친구들이 늘 다가와 주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복무를 마치고 로스쿨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스쿨 내에서 신앙 좋은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들을 통해 신우회에 가입해 함께 교회에 다니며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앙이 회복된 로스쿨 2학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대하지 않던 대형 로펌 인턴에 합격하고, 정식 채용된 것입니다. 채용 전제인지 모르고 시작한 인턴이었고, 다른 인턴들의 뛰어난 면모를 볼 때 기대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제 능력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고, 신앙 회복에 대한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용을 축하해 주던 신우회 동기 중 한 명이 한 자매(지금의 아내)를 소개해 주었고, 2018년 성탄절 전야에 그 자매 아버지(장인어른)의 권유로 처음 열린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열린교회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열린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머리로 그려지고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계속 출석을 이어갔고 2021년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열린교회 안에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되어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날 일은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성장반을 마치고 구역에 편입되어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변호사 일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로펌을 나와 동업으로 회사를 차렸는데, 동업자 사정으로 열 달 만에 이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다음 날, 경찰 조사 동석을 위해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이어갈지 막막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며 막막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역에 도착할 즈음, 옛 의뢰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운 소송 건이 생겼는데 도와 달라며 사건을 맡겼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 1:9)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막막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동업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연락처할 수 있었고, 동업이 해산되고는 더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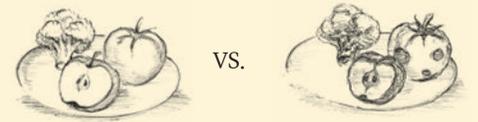
열린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삶의 매 순간 그분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소망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늘 생각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회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신 재능과 물질, 그리고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신앙이 약해지고 세상 풍파로 힘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믿는 사람들을 곁에 붙여 주신 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 해도 끝까지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포기하려 했던 순간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군대에서, 로스쿨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린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

곰곰이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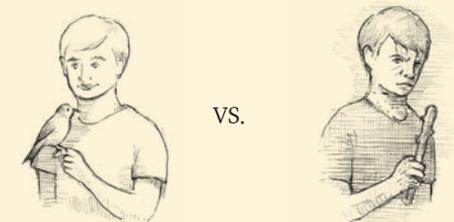
나쁜 음식 or 나빠진 음식

글·그림: 나동훈
gongom2@designzip.co.kr

좋은 음식도 썩어서 부패하면 나쁜 음식으로 변합니다. 썩은 음식은 나쁜 음식이 아니라, 나빠진 음식입니다.



인간의 본성도 그러합니다. 좋은 본성이 타락하자 나쁜 본성으로 변한 것입니다. 인간은 나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빠진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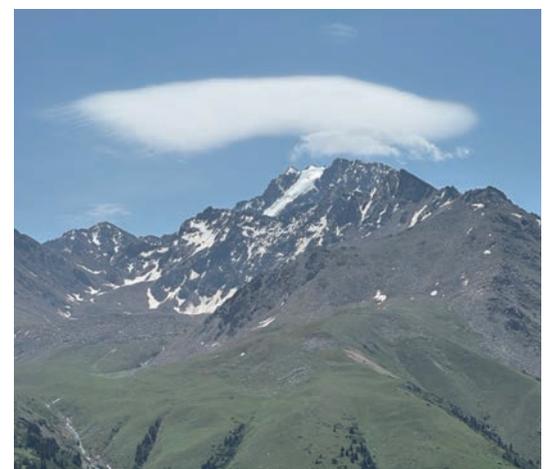


성선설과 성악설은 당신과 나의 타고난 본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악하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타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11



넘어저도 주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 당신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2025
가을말씀사경회

우리는 교회입니다

(엡 1:22~23)

첫째 날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둘째 날 우리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셋째 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일시 10월 21일(화)~23일(목) 오후 7:30

장소 예배실(열린교회 본관) **강사** 김성진 담임목사

교회학교(영아부~소년부, 사랑부) 사경회가 같은 시간에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유희 이동훈 박희준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김남근
-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환 김하림 이규희 김동기 손하람 최영광
김진산 김태영 정호석 최은광
- 협동목사** 정창욱
- 강도사** 김민성 이두호 조일권
-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곽해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찬 이순이
- 교육전도사** 곽승훈 권세원 이해선 박주광 김태훈 최현성
한하영

파송선교사

- A국:** 2 units / **B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해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목요일장일예배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금요일기도회 오후8시(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화요일기도회 오전10시(본관 1층 예배실)
	수요일침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토요일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4)
	청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 1층 교육실1)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 2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 1층 교육실2)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 1층 교육실1)
사랑부(정년부)	오전10시(별관 2층 교육실4)
외국인	외국인팀 정오12시(세빛빌딩 5층 외국인실)
백향목공동체	봄·가을학기 금요일 오전10시30분(본관 1층 예배실)
금요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1)
테마학교	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2)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